다시보는 불모지

❹ 불교 지명&사찰 두부

“매향리는 매화 향기 마을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 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족 단위로 국내 여행을 다니는 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이곳은 불교랑 관련 있나’ 싶은 지명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 지명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매향리입니다. 매향리는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입니다. 현재 이곳 지명을 한자로 보면 매화나무 매(梅)에 향기 향(香)을 씁니다. 이름을 보면 예쁘죠. 매화 향기 나는 마을.

하지만 진짜 매화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매화나무 ‘매’가 아니라 ‘묻다, 매장하다’ 할 때 ‘매(埋)’를 쓴 매향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을 묻는 ‘매향’을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매향은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뤄진 행위였습니다. 효능 좋은 침향을 얻기 위해 갯벌에 나무를 묻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미래에 오실 미륵불에게 공양할 침향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행위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매향비도 세워졌는데 전국적으로 16곳에 존재합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매향비인데 신라 원성왕 6년 78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매향은 신라 말기부터 이뤄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여말선초,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혼란기에 민초들이 구원의 존재를 바라며 매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매향비가 있는 곳들이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있는데요. 이곳들은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혼란기, 왜구들의 침입이 빈번해졌고, 미륵부처의 하생을 기원하며 매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왜 어떤 이유로 미륵을 바라며 향을 묻었던 민중들의 절박하고 거룩한 신앙이



‘구림리 매향비’로 불리는 영암군 정원명 비석.



매화 향기 나는 마을로 명칭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서울 근교에서도 불교 지명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 명칭에서 불교 지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딱 봐도 불교와 연관이 많은 지명입니다. 청량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청량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청량리는 이곳에 있는 청량사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망월사역은 망월사에서 비롯됐죠. 망월사는 한양 사람들이 정월의 만월을 보는 사찰로 붙여졌다고 하죠. 신라 선덕여왕 8년인 639년 해호 스님이 왕실 융성을 발원하며 창건했습니다.

회룡역은 의정부 회룡사에 기원을 둡니다. 회룡사는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법성사가 시초입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정도전의 시기를 피해 숨은 곳이기도 합니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찾아 중창한 뒤 이름을 회룡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불광역도 바로 불교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도 불광동인데 모두 불광사라는 사찰 명칭에서 유래됐습니다.

보문역과 보문동도 모두 보문사라는 사찰에서 유래됐는데요. 보문사는 미타사, 청량사와 함께 사승방으로 불렸습니다. 현재는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천왕역과 천왕동도 천왕사가 있던 곳입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아는 ‘천왕(天王)’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임금 왕(王)’을 ‘왕성할 왕(旺)’으로 바꿨습니다.

암사역과 암사동도 ‘바위 위의 절(巖寺)’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의 절인 백중사에서 기원한다고 전해지며, 9개의 사찰이 있어 구암사(九岩寺)라고 했습니다.

암사동에는 부처고개가 있는데 여기의 석불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렇게 불교 지명으로도 우리나라에 면면히 내려오는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다니면서 지명의 유래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조선 왕실도 사랑한 ‘사찰 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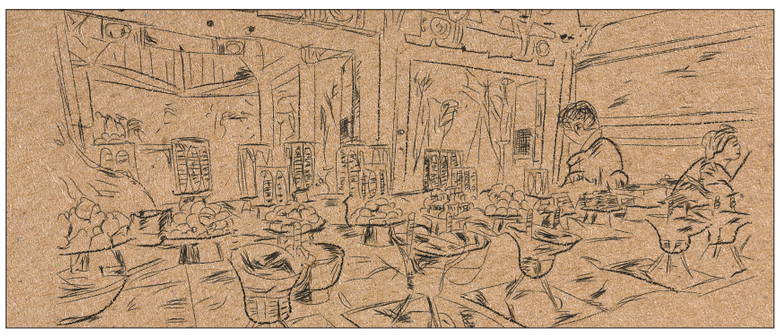
최근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봉은사는 전통문화체험시설인 서래원에서 ‘봉은두부’라는 명칭의 두부를 팔고 있습니다. 봉은사가 두부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봉은사가 조포사였기 때문입니다.

조포사. ‘지을 조(造)’에 ‘두부를 의미하는 포(泡)’, 그리고 ‘절 사(寺)’를 사용해서 조포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조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릉에서 이뤄지는 국가 제향에서 사용되는 두부를 맡아서 제작하는 전문적인 사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포사와 사찰 두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를 다룬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른 기록은 10세기 북송시대 때 첫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는 13~14세기에 전래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부가 한국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후기 문인 목은 이색(1328~1396)의 시에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집인 〈목은시고〉에서 두부 관련 시를 5편 가량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이른 기록은 1365년 이인복(1308~1374, 고려시대 문신으로 충정왕



조선 왕실 제향 진설상 예상도. 사찰 두부는 제향의 중요 음식이었다.

의 배향공신)과 함께 두부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기록인데 당시의 정황을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승의 거처와 같았다.’

그만큼 차분하고 담박한 풍미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찰두부는 왕실의 음식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제향이나 소수 고위관료들만 두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두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간수를 민간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두부는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조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포사는 원래 조선 후기 때 붙여진 명칭



입니다. 조선 전기 때에는 능침사라고 불렸습니다. 능침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후한시대 때입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진전사원으로써 왕릉의 추복을 담당했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기능을 했던 사찰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서 왕릉을 수호하는 능침사들이 선정됐습니다. 명칭은 제실, 제궁, 능사, 능침사, 조포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지만, 왕릉을 수호하고 국가 제향을 담당했던 기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조포사는 몇 곳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시기별로 몇 곳이 있었다고는 통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조포사 기능을 담당했던 사찰들의 현황을 정리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라는 기록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는 1930년 이왕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 총 38곳에 조포사가 있었다고 확인됩니다. 조포사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부터 진관사, 수국사, 용주사, 천은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찰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능침사, 조포사 이외에도 조포속사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설치되는데 조포속사 사찰들은 두부를 만드는 조포사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해남 땅끝 사찰로 잘 알려진 미황사의 경우에는 조포속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찰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조포사들의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일부 조포사들은 과도한 승역을 견디다 못해서 사찰 재정이 몰락하고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왕실의 제향을 담당했던 조포사들은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의 국가 사전 제사권이 몰수되면서 제사를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게 되고 이후 제향을 담당했던 조포사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왕실의 제향을 담당했던 두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찰 두부는 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진관사 스님들은 섣달 그믐부터 정월 보름까지 두부 만들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두부를 가지고 채식 만두를 만들어서 조왕신에게 재를 올리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두부들은 신도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상억 서울대 명예교수가 관련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억 명예교수의 증조모가 진관사의 대시주자였는데 섣달 그믐이면 진관사에서 두부전골을 요리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가족이 같이 먹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찰의 두부는 왕실의 음식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음식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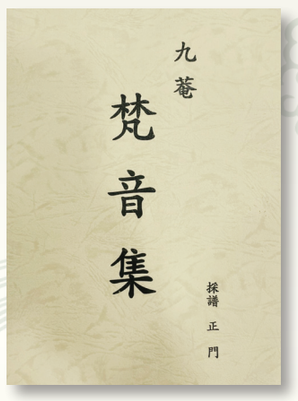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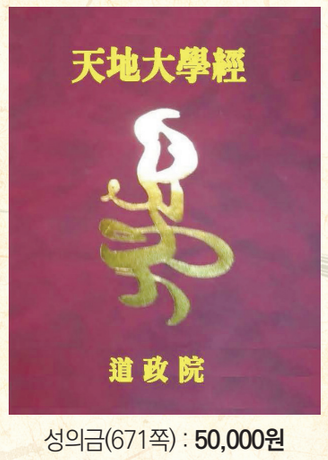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